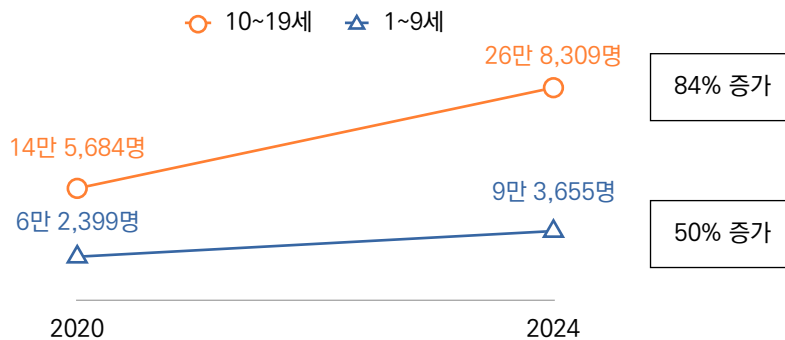




[아동 정신건강 문제] 정신과 진료 받은 10대 청소년, 4년사이 84% 증가

- 10대 이하(1~19세)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최근 발표 자료(개혁신당 이주영 의원, 국민건강보험공단)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.
- 2024년 기준 정신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세 미만(1~9세) 아동은 9만 3,655명으로 2020년 6만 2,399명에서 4년 새 50%나 늘었다. 또, 10~19세 청소년 역시 2020년 14만 5,684명에서 2024년 26만 8,309명으로 84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아동(10대 이하) 정신 질환 진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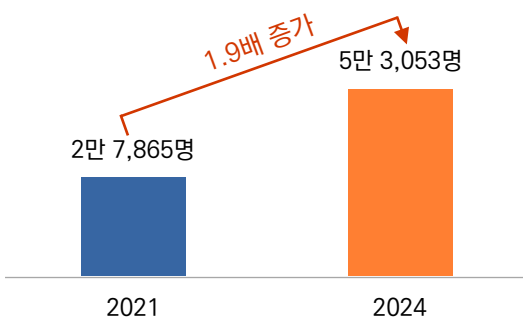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동아일보, [단독]정신과 진료 1~9세, 작년 10만명 육박, 2025.10.09.
(<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51008/132527125/2>)

10세 미만 ADHD 약 처방, 3년 새 2배 증가

- 10세 미만(1~9세)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 처방 인원을 살펴본 결과, 2021년 2만 7865명에서 2024년 5만 3053명으로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전문가들은 진단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문화가 더 큰 문제라는 공통된 견해를 내놨다. 약 처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에너지와 욕구가 잘 조절되도록 운동, 놀이 치료 등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[그림] 10세 미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 의약품 처방 인원



※출처 : 동아일보, [단독]정신과 진료 1~9세, 작년 10만명 육박, 2025.10.09.
(<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51008/132527125/2>)